

밀레니얼 세대가 '5월 광주'를 기억하는 법

그룹 MOIZ, '미래 기념비 탐사대' 발간 북콘서트 20일 광주여성가족재단... 낭독공연도 진행 연극·전시 책으로 꾸준히 '5월 광주' 조명

사람들은 이 공간이 다양하게 쓰이길 바랐다. 누군가는 건물 외관을 그대로 살려 플라워 카페 등이 있는 거대한 화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화사한 꽃과 나무로 장식돼 생명력 가득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그날'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듣는 '기억 정원'으로 자리잡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또 누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예술공간을 꿈꿨고, '병원'이라는 정체성을 살려 '공동체 삶'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MOIZ가 지난해 서울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한 '미래 기념비 탐사대'

1980년 당시 수많은 부상자를 치료하고 시민들의 목숨을 살려낸 광주전변 옛 적십자병원(5·18 사적지 11호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다채로운 의견은 지난 2019년 열린 아카이브 프로젝트 '나가 어찌해 살면 좋겠어요?'에서 나왔었다. 당시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창작그룹 MOIZ는 5·18을 기억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작업을 꾸준히 이어왔다. '오월 광주'가 '박제된 역사'가 아닌, 미래 속에서도 생생히 살아있는 '오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MOIZ의 행보는 의미있다. 첫 기획이었던 전시에 이어 지난해에는 다큐멘터리 연극 '미래 기념비 탐사대'를 무대에 올렸고, 올해는 연극 과정과 후일담 등을 담은 동명의 책을 발간하고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MOIZ는 '우리의 틀을 직접 만든다'를 모토로 시각예술, 음악, 글, 연출,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0대 청년 도민주·양재은·문다은·전하선으로 구성된 크리에이티브 그룹이다. 책 작업은 전하선씨를 제외한 3명이 진행했다. MOIZ는 '기억 방식'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왔다. "기념"을 통해 5·18을 감각해야 한다면 내가 겪지 않은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을 연결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하고, 5월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이 공존하는 지금, 어떻게 기억해야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는 20일 오후 7시30분 광주여성가족재단 북카페 은새암에서는 '미래 기념비 탐사대' 발간 기념 북콘서트 '20대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5·18과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기념방식'과 낭독공연이 열린다.

지난해 서울 남산예술센터 '서치라이트' 공모에 당선돼 무대에 올린 다큐멘터리 연극 '미래 기념비 탐사대'는 1980년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기존 예술 작품들과 결이 다르다. 5월을 직접 겪지 않은, 현재 광주에서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이 '5월 광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언어로 발언하고, '탐사대' 형식을 빌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목

현대무용가 차진엽이 '지구에게 보내는 음악편지'

광주문화예술회관, 28일 '11시 음악산책'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 매·월 마지막 주 진행하고 있는 '11시 음악산책'은 '음악과 삶으로의 산책'을 컨셉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음악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다. 올해 주제는 '지구에게 보내는 음악편지'로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지금, 예술의 힘으로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해보자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다.



하고 순환하는 과정을 그린 '윙행하는 몸: round 1'으로 시작된다. 이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동시에 말로 강연하는 방식의 '렉처퍼포먼스', 허영으로 인한 욕망때문에 잃어버린 자신의 존재를 탐색하는 작품인 '페이크 다이아몬드' 등을 선보이며 'HOWHERE by 하임', '카오스' 등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차진엽은 현재 크리에이티브 아트 그룹 콜렉티브에이 예술감독으로 활동중이다. 과거 오디션프로그램 '댄싱9'의 심사위원으로 주목받았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의 안무감독으로 활동했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장국영 마지막 유작 '이도공간' 만나다

디지털 복원 거쳐 19년만에 광주극장·롯데시네마 재개봉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이 출연한 '해피 투게더', '패왕별희' 등이 지난해부터 재개봉,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가운데 그의 마지막 유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영화 '이도공간' (사진·2002)이 디지털 복원을 거쳐 19년 만에 광주극장과 롯데시네마 등에서 21일 재개봉한다.

작품은 죽은자의 혼령을 보는 여자 안과 그녀를 치료하며 점점 알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 정신과 의사 짐의 이야기를 그린 심리 호러물이다. 짐은 장국영이, 안은 임가흔이 연기했다. '귀신은 뇌에 저장된 정보일 뿐'이라며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짐. 그의 조연대로 과거의 일들을 되짚어보던 안은 자신을 버렸던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하며 점차 평정을 되찾게 된다.

안은 짐의 보살핌으로 혼령의 공포를 벗어나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한다. 하지만 안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된 귀신은 이제 짐에게 나타나고 짐은 죽은 첫사랑의 영혼을 보기 시작하고 점점 자신만의 공포에 빠져들게 된다.

국내에서 지난 2003년 개봉했으며, 개봉 전인 그해 4월 장국영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장국영의 마지막 유작으로도 잘 알려졌다. 당시 장국영의 사망이 이 작품 때문이라는 원망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홍콩 제작사는 갖고 있던 모든 필름을 불태워버렸고, 이후 영화는 재개봉이나 복원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영화영상인연대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김지연)는 영화에 대한 기술적인 교류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광시CINE'을 진행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총 4달간 진행된다. 전문 영화인이 멘토로써 영화 기술을 공유하며 광주지역 내 지속 가능한 영화 공동체 마련을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이다. 광주지역 전문 영화인으로 구성된 멘토의 주도

아래 멘토들이 영화 제작에 관한 시나리오 작성, 감상, 비평, 글쓰기 등 영화에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영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도 배울 수 있게 구성한다. 팀별로 총 10회의 모임을 진행하고, 팀별로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23일까지 하면 된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공식 SNS,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 확인.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빛고을국악전수관, 어린이 국악교실 수강생 모집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제75기 국악문화학교 및 방과 후 어린이국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국악문화학교는 8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개월 과정(주 2회 1시간씩)으로 진행된다. 민요·판소리·가야금·대금·가야금병창·장고·고보·해금·정가 등 9개 강좌를 초·중급반으로 구분해 운영하며, 초등학교생 위한 방과 후 어린이강좌는 가야금·해금 2개 강좌가 마련된다.

각 과정별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을 원하는 주민 및 어린이는 오는 30일까지 빛고을국악전수관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3개월에 5만원이다.

한편, 빛고을국악전수관은 국악문화학교를 운영해 지금까지 2만20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는 등 국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의 062-350-455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